

치 사

갑오년 한 해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제는 그 마무리를 해야 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는 복지와 봉사 현장에서 훈훈한 온정과 정성을 다해 자비 실천에 앞장서 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자비나눔 한마당에 참석해 주신 대덕스님과 정·관계 대표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불교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 !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첨단문명의 편리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와 집단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고통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화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업식으로 뭉쳐온 탐·진·치 삼독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부처님께서서는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자들은 빼앗기지 않으면서 더 가지려 하고, 갖지 못한 자들은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빼앗으려는 열망으로 세상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불태우고 있는 삼독심의 불을 꺼줄 감로수는 너무도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자비행이야말로 이웃과 사회를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를 널리 알리어 실천하는 것이며, 뜨거운 욕망을 식혀줄 감로수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불교복지시설과 사찰들의 복지·봉사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촌 방방곡곡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자비 광명으로 밝히는 불교복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뜻 깊은 이 자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과 무주상보시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현장실천가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의 보살행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불교복지사회복지는 그동안의 급격한 물리적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변하는 사회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 대상자가 실적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부처님 법안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물질계와 정신계가 잘 조화된 수준 높은 복지국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불교사회복지 실천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당당하게 대승보살의 길에 손잡고 나아가길 바라며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11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 승